



김미희 마리스텔라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한국지부 부회장

## 하느님께 내맡기는 기쁨

모성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는 축복이며 고귀한 사명입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자녀 중 하나를 저희의 보살핌 안에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큰 신뢰를 저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됨의 중요함을 항상 기쁘게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 어머니들의 기도 책자 8번째 기도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올해 첫 미사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강론에서 “모성은 인간애의 토대이며 분열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치료제”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대사회에 ‘모성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은 영국의 두 할머니, 베로니카와 산드라는 1995년 세 어머니와 함께 처음 ‘어머니들의 기도’(www.mothersprayers.org)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의 영성은 ‘주님께 온전히 내맡김(Surrender to Him)’입니다. 베로니카는 그의 저서 『하느님께 내맡기는 기쁨』(뜨사랑)에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내맡김으로써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 넘치는 주님의 이끄심’을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전 처음 ‘어머니들의 기도’를 만났을 때 저는 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선물을 받은 어머니들이 90여 명, 18개 그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모

여 기도 책자(서울대교구 인준)에 따라 기도합니다. 9개 기도문을 바친 후 십자가 아래 바구니에 저희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사제, 수도자, 대자·대녀)의 이름이 적힌 동그란 종이를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주님 손(바구니) 안에 맡기며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저에게 준 축복은 신앙인으로서 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① 그래(Yes), ② 아직(Not yet), ③ 더 좋은 계획(Something better in mind).

‘어머니들의 기도’를 알기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늘 1번 즉답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2번의 답을 받아들이며 3번의 답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100% 맡기고 기도할 때 저는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큰 치유와 평화, 희망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지닌 또 하나의 축복은 모성의 확장입니다. 현재 세계 120여 개국, 수만 명 ‘어머니들의 기도’ 회원들은 우리 자녀들은 물론 기도해줄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녀를 위해 ‘어머니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지구 어디선가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